

# “지역인재 유출 막기 위해 최선을”

###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 위원회 회의 가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 현안 해결 할 것

전북지역의 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이원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가 지난 26일 2019년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차 위원회 회의를 했다.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청장,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양성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013년 출범 이래 전북지역 일자리 현안 해소를 위해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과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북지역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백철규 前BCO융합심층연구원장이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연임이 결정됐

고 고용노동부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백철규 선임위원은 지난 임기동안 전북도 인력양성 계획수립과 수요, 공급 조사에 대한 지도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철규 선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 섬유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략산업본부 상무이사, 前BCO 융합심층연구원장과 (재)섬유패션정책연구원장(現)을 역임했으며 향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도 산업분야 고용현안과제의 진단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나갈 예정이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해 도내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를 하여 2019년도 지역인력양성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4개의 공동훈련센터와 2개 파르너훈련센터를 통하여 총 7개 과정에 2,890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난 26일 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305명의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도제 참여기업 40개를 발굴하고 100개 이상의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선홍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위기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각종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형 자동차 혁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며, “전북인재위가 일자리 현안 문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균형발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

### 전주김제완주축협, 정기총회 개최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지난 25일 한우명품관 대회의실에서 제16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기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1차례 연기되어 예정보다 늦게 했으며,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선거까지 겹쳐 주변의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이사, 대의원들 대상으로 전주시혁신구상거버넌스위원회의 주관 하에 공명선거 특강과 홍보동영상을 시청 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지난해 경기 불황속에서도 당기순이익 19억원과 조합사업실적 1조 587억원을 시현했고

세부적으로는 상호금융예수금 4,302억원 상호금융대출금 3,783억원 보험료 153억원 등을 달성했다.

따라서, 경제사업 매출액은 1,829억원으로 구매사업 379억원, 판매사업 1,117억원 등의 성과를 거양했다.

김창수 조합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한마음으로 함께해준 조합원님과 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욱 내실경영을 다져 전국 1등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최고의 영예 ‘총화상’을 수상한데 이어 전국축협 ‘경제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 대상, 축산물 판매연도대상 수상, 지도사업 종합평가 1위’를 달성했다.

/김영태 기자

## 지난해 자본시장 부정거래 적발, 전년比 170% ↑ ... 시세조종 사건은 22% ↓

지난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같은 기간 소폭 감소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7건(170%) 증가한 27건을 기록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같은 기간 5건(22%) 감소한 18건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 위반은 2017년과 같은 36건이 적발됐고 보고의무 위반은 3건(15%) 늘어난 23건이 적발됐다.

상장회사 대주주,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 대비 11명 증가한 58명을 기록했다. 다만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같은 기간 26명 감소한 16명으로 집계됐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총 151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증선위 의견을 거쳐 89건은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했다”며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이첩된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12건(15.6%) 증가한 89건이었고 비중 역시 같은 기간 3.5%포인트 늘어난 58.9%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적시성을 제고해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체인지 사건 발굴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대비 자체 인지 사건은 14건 증가한 62건을 기록했다.

사회적 관심사항인 가상통화·지방선거 테마주·보물선 관련주 등에 대해서도 투자자 경보를 신속하게 발표 후 지체없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밖에 ▲일반투자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운영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등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 전주상공회의소, 개정세법 전북지역 설명회 가져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신청사 7층 대강당에서 도내 기업체 경리, 회계담당 부서장, 실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18년 귀속 개정세법 전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김진홍, 김동원 주무관 2명이 강사로 나와 국제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

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개편 내용의 질의, 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설명회는 2018년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을 개정하여 공포, 시행함으로써 회원업체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전주상공회의소가 기획재정부,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해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 지난달보다 2.9p 상승

2019년 2월중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2로 전월(99.3)보다 2.9p 상승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소비자지향지수(CSI) (주요지수)는 소비지출전망(108→108)은 전월과 동일, 현재생활형편(92→94), 생활형편전망(93→95), 가계수입전망(96→100), 현재경기판단(71→74), 향후경기전망(83

→87)은 전월보다 상승했고 (여타지수)는 취업기회전망(84→89) 및 가계저축전망(89→97)은 전월에 비해 상승, 금리수준전망(121→118), 가계부채전망(101→97), 주택가격전망(93→87), 임금수준전망(123→119)은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북지역 소비자의 현재생활형편(92→94) 및 생활형편전망(93→95)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김영태 기자



지난 25일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무배당 NH치매플러스보험' 출시를 기념해 영등동지점을 방문하여 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다.

## 최대 100세까지 보장

### 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치매플러스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강희상)은 지난 25일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무배당 NH치매플러스보험' 출시를 기념해 영등동지점을 방문하여 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NH치매플러스보험은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중증치매는 물론 경증치매까지 보장한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으로 중증치매 진단 시 최대 1

억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NH치매플러스보험은 통종, 대상포진, 대상포진병변진단비 등 통종담보에 대한 보장을 추가했고 고혈압·고지혈증·당뇨 유병자가 많은 고연령 고객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담보를 구성한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한편, 무배당 NH치매플러스보험은 보험료 변동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농협은행을 통해 상품에 대한 상담 또는 가입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